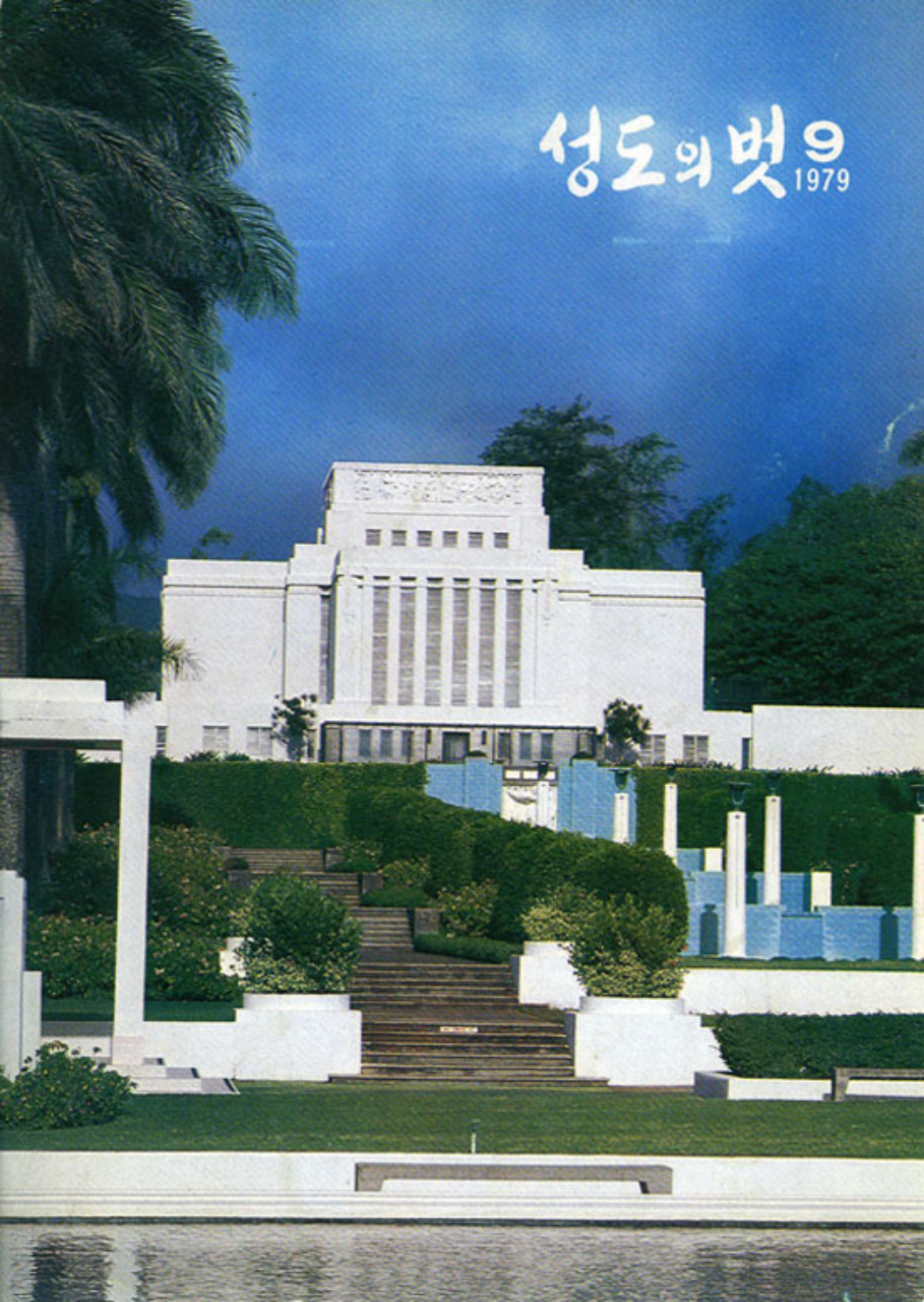


# 성도의 빛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매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콰우스트

교문

엘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79

차 례

헌납의 법의 원리대로 생활함...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시온을 이룩하는 여섯 원칙..... 알 킨 가드너..... 5  
 금식 헌금..... 래리 이 모리스..... 11  
 질의 응답..... 15  
 한겨울에 남편을 선교사로 보내고..... 로자 코올러..... 18  
 우리 조상의 이야기..... 내넷 라슨..... 23  
 아브라함의 번제..... 26  
 안나 세실리아와 알버티나..... 제르트류드 엠 리차즈..... 28  
 신앙은 더욱 큰 지식..... 지 호머 더럼 장로..... 31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멜빈 레빗..... 35  
 인간의 기원과 성취된 예언..... 조지 알버트 스미스..... 39  
 지역 지도자 메시지..... 김 창 선..... 44  
 지역 소식..... 46

통 권 : 제170호, 제15권 제9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진 수

1979년  
 제15권 제9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 헌법의 법의 원리대로 생활함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헌법의 법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제시되었습니다. 주님은 1831년 1월 2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조직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때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아들 열 둘을

가졌는 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아비에게 순종하여 섬기나, 아비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 같이 진실하도다.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 : 25-27)

38일 후인, 1831년 2월 9일에,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헌납의 법을 제시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재물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 두 사람의 장로 곧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임명될 자, 또는 이미 임명되어 성별된 대제사 앞에 바치라.

“이들 재물이 내 교회의 감독 앞에 바쳐진 다음 나의 계명에 좃아 교회로부터 되찾아 갈 수 없다는 나의 교회의 재산 헌납에 관한 간증을 받은 후에는 모든 사람은 내게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니, 곧 헌납된 재물에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히 분배 받은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하느니라.”(교성 42 : 29-32)

헌납의 법에 대한 기본 원리와 합당성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께 속한 까닭에 주님은 우리가 소유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교성 104 : 14-17, 54-57)(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대회 보고, 1942년 10월, 55페이지)

헌납의 법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가

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균등하게”(교성 51 : 3)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가난한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가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서에 의하여 감독에게서 받은 땅은, 자신이 교회에 양도했던 땅의 일부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무조건 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개인적인 재산은 모두 다 때로는 “몫”(교성 51 : 4-6)으로, 또는 관리인의 직분(교성 104 : 11-12), 때로는 ‘상속의 땅’(교성 83 : 3)이라 불리었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대회 보고, 1942년, 10월, 56페이지)

미주리주 잭슨군에 있는 성도들은 “협동 교단”을 조직하고, 헌납의 법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주리에서 쫓겨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패하고 역경을 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고난을 겪는 나의 백성의 구속에 관한 내 뜻을 알고자 함께 모인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전체에 대하여 말함이니, 나의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미 구속함을 받았으리라.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율화 단계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느니라.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나의 장로들이 시온이 구속받는 날을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며 나의 백성이 더욱 완전하게 배우며 경험을 쌓으며 저들의 의무와 내가 저들에게 요구한 일을 더욱 완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05 : 1-6, 9-10)

이와 같이 하여 헌납의 법을 실행하려는 첫번째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헌납의 법이 실천의 막이 내린 지 약 100년쯤 지난 1936년 10월에 교회 대관장단은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을 주로 설계한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복지 프로그램과 협동 교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지 계획이 협동 교단과 같지 않으며 그 의도도 다른 것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복지 계획이 온전히 수행되면, 협동 교단의 위대한 기본 원리를 수행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바이지만, 협동 교단은 재산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원리를 토대로 하여 세

워졌으며, 인간이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갖든지, 협동 교단에 들어와 생활하는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체제의 근본이 되는 중심 원리는 사유 재산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은 물건이나 잉여물을 협동 교단에서 모아두는 대신에 오늘날 우리는 금식 기금, 복지 기금, 십일조를 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업무와 활동을 위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협동 교단은 주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을 없애자는 취지로 설립이 된 조직이었으며, 복지 계획의 목적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인간 세계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겠지만, 부유한 자는 자신의 소유를 적절히 분배하려 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재산을 가진 자로부터 당연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일하지 않고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게으름의 악과 탐욕의 악에 대한 계시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협동 교단하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한 물품을 감독의 창고에 모아 두었습니다. 현재는 복지 계획하에 감독의 창고가 그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 교단하에서 헌납의 법에 따라 교회에 들어온 잉여 재산은 교회의 ‘공동 재산’이 되어, 가난한 자를 위해 협동 교단에서 관리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교회에서 복지 계획하에 워드 토지 사업도 맡아 행하고 있습니다. 워드에서 토지

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와드에서 임대하거나 개인이 교회에 빌려 주는 수도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가난한 자를 위해 경작됩니다.

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나, 헌납의 법의 원리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와 규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리와 실천은 게으름과 탐욕



헌납의 법은 “가족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몫을 배정하여”(교성 51:3)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형제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시킨 복지 계획은 대부분이 협동 교단의 광범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대가로 농장에서 일하도록 주선해 준다는 점에서, 가난한 자들이 공동 기금에서 일정한 몫을 배정받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획인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2년 10월 57-58페이지)

우리는 이제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필요는 없으나, 클라크 부대관장이 “완전하게 운영이 되면 협동 교단의 위대한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 프

로그램이 없애는 것, 자유스럽게 금식 기금과 복지 기금을 내는 것,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며, 대관장단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목적에 따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대회 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

# 시온을 이룩하는 여섯 원칙

알 권 가드너



시온은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주어지는 경전의 호칭입니다. 시온은 의롭게 살기로 성약하고,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충실히 생활하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의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시온은 장소, 인간, 특성 등의 여러 가지 개념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진실로 시온을 독특하게 하는 특성 즉 마음의 청결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나갑니다.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에만 그 약속은 성취될 수 있고 완전한 시온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천년에 완전히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실 것이므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장차 있을 멧있는 세계, 즉 청결한 사람들이 거할 하나님의 장막 곧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모세서 7:62 참조)

이 시온의 건설은 말일의 시온의 주민이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성 105:5)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오늘날에 세워질 것이며 세워져야 한다고 약속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지체없이 이러한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해의 왕국의 원리와 율법은 1977년 10월 연차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공장이 훌륭한 말씀으로 재강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현대의 복지 사업 활동을 주도하는 여섯 가지의 “근본되는 진리”를 들면서, “신권



사회에서 가장 높은 반차”인 이상적인 시온은 “이 진리를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건설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1. 사랑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 즉 넓은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은 형식적인 사랑으로는 설립될 수 없으며, 성약과 속죄의 권능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품어야” 이루어집니다. (모로 7 : 44-48 참조)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터 신권 정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복지 농장에서 즐겨 일하는 형제애에서 가사 시간에 모여 함께 일하는 상호부조회의 자매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복음 계획과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가장 순수한 사랑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권능이며,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교성 97 : 21)가 되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 2. 봉사

“둘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구원하며,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예언의 영에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앨 4 : 13)”

인간은 봉사하는 것이 전체적인 과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

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본보기와 계율을 보여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치셨지만, 내가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것은 집사 정원회 공과 시간에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집사 정원회 고문은 산만한 분위기를 집중시키려 애쓰며 양손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려 하노니 여러분은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나는 어린 마음에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왜 안되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과가 끝날 때 쯤해서, 이 유능한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축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 3. 일

“셋째는 일입니다. 일은 행복, 자기 존중,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일은 모든 성취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태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 3 : 19 참조) 실업 수당으로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복지를 얻으려는 의도는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교회 회원은 일하는 것을 마땅히 생활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교성 42 : 42; 75 : 29; 68, 30-32; 56 : 17)

일은 교회에서 지배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기적인 부의 축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왕국의 건설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네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교성 19 : 26)고 경고하셨습니다.

킴벌 대판장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훌륭한 기사에서 현대 이스라엘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가축과 땅과 곳간과 부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한 것이 대체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 많은 돈, 주식, 증권, 재산, 가구, 자동차 등, 길고 행복한 이 세상 생활을 보장해 줄 것같은 이러한 자기의 우상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이와 같은 많은 자원을 우리의 가정과 정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 곧 선교 사업을 확장시키고, 자녀를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키우며,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수행하고, 모든 면에서 이웃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 4. 자립심

“넷째는 자립심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자립하고 독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성 78 : 13-14 참조)

“각 사람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은 우선은 그 개인에게 있고, 다음은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경우에 교회에 있습니다. 참다운 말일성도라면,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

루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인도와 자신의 노력으로써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필요 사항을 자신과 가족에게 충족시킬 것입니다. (딤후 5 : 8)

자립심이 말일성도의 근본적인 미덕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심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개인적인 은사와 개발된 능력을 행사하여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을 우리 스스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 스스로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예를 들면, 내가 거짓 말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가? 등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정상인은 누구나 그 답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약속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급 자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풍부하게 생산해 내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남은 여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도와 주게 됩니다.

#### 5. 헌납

“다섯째는 헌납입니다. 이것은 희생까지도 포함합니다. 헌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사업을 통하여 회원은 생산 사업체에서

일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인 재능을 나  
 높으로써, 관대한 금식 헌금을 바칩으  
 로써, 그리고 와드와 정원회의 사업에  
 응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  
 으로 시간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곧 헌납하는 것입  
 니다.”

많은 회원들이 헌납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일시적으로 중지된 헌납의 법  
 곧, 주님의 공식적 합법적인 경계 질서  
 만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  
 대에 적용되는 헌납의 법은 없다고 가  
 정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헌납의 법은 주님의 예언자들  
 통하여 주님의 시대에 회복될 것이지만  
 주님은 신전 엔다우먼트를 통해 맺는 헌  
 납의 성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약은 꾸준히 밀고 나가 말일성도에 의  
 하여 활발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  
 을 지금 실행하여야만 우리는 미래에 설립  
 될 헌납의 법의 장점을 살려 나갈 수 있  
 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 헌납을 적용시키  
 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십일조를 바치  
 고 관대한 금식 헌금을 바치며, 건축과  
 신전 기금을 바치고, 복지 농장 및 설  
 비 기금을 마련하고, 복음 선교사를 경  
 제적으로 돕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훈련  
 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  
 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실제 물질을  
 헌납하는 것도 영적인 성결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헌납과 마음의 성  
 결은 시온 곧 마음의 청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성 29 : 34 참조)

힐라맨은 어떤 믿음이 깊은 무리에 대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마  
 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 이는 오  
 직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  
 미암았음이다.”(월 3 : 35)

우리는 우리가 헌납에 대한 성약의 의  
 무와 원리를 완전히 익혀, 우리의 마음  
 과 뜻을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바친다면  
 충만한 시온 사회와 구세주의 지상 통  
 치가 시작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 6. 청지기의 직분

여섯째는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교회  
 에서 청지기의 직분이란 책임이 있는 것  
 에 대한 영적, 물질적인 신뢰를 의미합  
 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족과 재  
 산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교  
 성 104 : 11-15 참조) 충실한 청지기란  
 의롭게 관리하고, 자신을 돌보며, 가난  
 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교성 104 : 15-18 참조)

청지기 직분은 공식적인 헌납의 법에  
 서 발전된 것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  
 다. 헌납의 법은 모든 것이 주님께 속  
 해 있다는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  
 로, 그 전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을 주님께 헌납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  
 라 주님은 각 남성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청지기로 지명해 주셨습니  
 다. 청지기가 된 사람은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하여 주  
 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성 42편  
 참조) 그러나 청지기의 직분의 원리는  
 현재 우리가 맺은 칙례와 헌납의 성약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의 청  
 지기의 직분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



리의 시간과 재능, 재산, 가족, 교회 부름 및 신권의 직분 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받고 있는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의 일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청지기의 원리를 몸에 익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 그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것을 지금이나 영원토록 요구”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성 72 : 3)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족과 신권의 책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왕국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현재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말일성도는 궁극적인 시온 사회의 창설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충실하며 올바르게 지혜로운 관리인은 누구든지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교성 51 : 19)

한 마디로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충실히 그리고 변함없이 이러한 여섯 가지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지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권능과 순결은 세상 사람에게 하나의 기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추측에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취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고 또 나의 앞길

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는 사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의인이 모든 국민 가운데서 모여 영원히 기쁜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리라.” (교성 45 : 9, 71)

뒤이어, 주님은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시온이 번성하며 주의 영광은 시온 위에 있으리라.

“그 날이 이르면 만국 백성이 시온으로 말미암아 떨며 시온의 무서운 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교성 64 : 41, 43)

우리가 시온의 성장을 늘 인식하고 있을 수는 없으나, 최근의 교회 발전상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그 과정이 계속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블 대관장은 시온 건설에서 우리가 더욱 수고하도록 촉구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맡은 몫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온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시온이 건설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회원 각자가 모두 끊임없이 매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온의 건설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고초나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 발전에 기여하나 선교 사업, 신전 계보 및 복지 사업 등은 시온 사회를 건설하는데 추적이 됩니다. 전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모여 들게 됩니다.

계보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은 시온산의 구세주가 됩니다. 신전에서 예배드리



복천년이 오면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합당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매시 시온 사회를 이루기 위한 힘을 모으고 준비하게 됩니다.

복지 사업은 관대한 금식 기금과 복지 사업 기금 및 가난하고 불쌍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바치는 기회를 통해 헌납에 관한 신전 성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독립심을 갖고, 헌납하고, 우리의 선교 사업, 신전 계보 및 복지 사업의 의무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높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이 성결케 되고 심신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교성(84 : 33 참조) 그와 같이 함으로써 주께서 에녹에게 하신 성약이 이루어 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 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에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거기에 나의 장막이 있을 것임이라. 그곳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

리라.

“또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그 때에 너와 네 온 도성을 그곳에서 저들을 만나리니, 우리가 저들을 우리의 품으로 영접할 것이요, 저들은 우리를 보리라. 우리는 저들의 목을 겨안아 서로 입맞추리라.

“그 곳에 나의 처소가 있어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로부터 나올 것이라. 땅은 천년동안 안식을 누리리라.” (모세서 7 : 62-64)

이같이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시온을 위해 기도하신 킴볼 대관장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은 사랑의 유대로 계속되고, 우리가, 이 말일의 시온을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고,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도록”(교성 65 : 6 참조)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

교회 복지 사업과의 관리 책임자인 알 켈 가드너 형제는 바운티풀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의 바운티풀 제29와드에 속하고 있다.

# 금식 헌금

래리 이 모리스

**손** 트레이크시티가 아직 개척기에 있을 때 집사직을 맡고 있던 윌라드 알 스미스는 자기 구역에서 “금식 헌물”을 수집하는 지명을 받았다. 그의 관리자인 피터 레이드 형제는 금식 헌금을 모으고 헌물로 들어온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윌라드의 집에 들러 윌라드에게 조그만 포장 마차의 먼지를 털고, 기름을 쳐서 그 일을 행할 준비를 시켰다.

윌라드는 그 구역에서 회원,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정을 찾아 다니며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기회를 베풀어 주었다.

어느 토요일, 윌라드의 축구 팀이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는 몹시 축구가 하고 싶었다. 그는 자기가 금식 헌물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의 심정을 후에 이렇게 회상했



다. “나는 그 게임을 무엇보다도 더 하고 싶었어요. 나는 의무보다는 즐거움을 택하기로 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찌기 레이드 형제가 우리 집 뒷문을 두드리며 나를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는 ‘윌라드, 너 잠시 시간을 내어 나하고 저기 좀 가 보겠니?’ 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그와 함께 먼저 어느 작은 집으로 갔습시다. 그가 가만히 문을 두드리니 한 가냘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레이드 형제님, 어제는 식량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시다.’ 하고 그 부인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안으로 식량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집으로 갔습시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 노인 부부가 침대에서 담요를 쓰고 있었습시다. ‘레이드 형제님, 집에 벨감이 없어서, 이렇게 담요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울망쫄망한 어린 아이들이 딸린 어머니가 우리를 맞았습시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의 얼굴도 눈물에 얼룩져 있었습시다.

“그것만으로도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습시다.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오자 레이드 형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윌라드야, 누구든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법이란단다.’

“나는 내 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

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시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쳐주고 떠났습시다. 그 사람들이 그 날 낮에 식량과 연료를 공급 받았음은 물론이며, 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받았습시다.”(금식의 법 준수 교육 프로그램, 소책자 1965년 19~20페이지)

스미스 형제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보면 금식 헌금은 봉투에 돈 몇 푼을 넣는다는 것을 넘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 헌금의 중요성을 잊거나 심지어는 경시하는 수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십일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재림시에 구원되리라는 말을 듣는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유타주 세인트조지에서 가뭄이 심했을 때 그 주민들에게 그들이 십일조를 내면 그 지역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성취된 일이 있다. 우리는 사람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말 3: 8-10 참조)

그러나 이 성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라는 물음에, 주님은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 8)고 대답하신다. 대체로 우리가 금식 헌금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한 총관리 직원들은 이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금식 헌금은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원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금식 헌금에 있습니다.”(해롤드 비리, 복지 농업 모임에서 인용, 1971년 3월)



1971년에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회원들에게 금식 헌금을 배로 내도록 권고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의 영성도 역시 배가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1974년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금식 헌물을 바친다면 최근에 조직된 지부라도 대개의 경우 자립할 수 있습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 184페이지)

주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교성 52 : 40 참조)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인 것이다.

물론, 금식 헌금을 바친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교회에 내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형제가 있다.

“내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던 중, 미국에 있는 집에 다니러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돈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금식 기금을 내야 했고, 물건을 넣을 트렁크도 사야 했고, 공항까지 갈 차비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이 중에서 두 가지 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금식 헌금 내는 것을 잠시 미루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교회에 가서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금식 헌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가방을 사거나 아니면 가방이 없이 여비로 쓰는 수 밖엔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게 내가 길을 걸고 있는데, 트렁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웬일이냐고 물어보니 그는 그것을 내버리려는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나에게 트렁크를 기꺼이 전배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금식 헌금을 바쳐 곧 축복이 내게 온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스테이크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여 금식 헌금을 배로 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만 한다면 수입이 크게 늘어 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집에 가서 이 약속에 대하여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금식 헌금을 충분히 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금액을 기꺼이 배로 낼 수도 있었지만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모로 생각해 본 후에 금식 헌금을 배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내가 하는 일에서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왔습니다. 1년후에는 수입이 크게 불어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이었으며, 주님의 한 종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두 경우를 살펴볼 때,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된 동기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 했다.

이 희생의 원리는 참으로 금식의 법을 지키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다. 금식 헌금의 최저선은 두끼의 식비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때로 아까운 마음이 들어 아침에 계란 한 개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몇 푼 안되는 돈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는 두끼의 식사분을 빼어 놓은 금액보다도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것을 관대하게 바쳐야 합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 184페이지)

금식 기금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된다. 킴볼 대 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다 관대하게 금식 기금을 바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복지 사업 : 실천의 복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20페이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금식 기금을 더욱 뜻깊게 바칠 수 있다. (1) 금식일 전의 가정의 밤 시간에 우리는 금식과 금식 기금을 내는 이유를 토론할 수 있다. (2) 우리는 금식하는 목적을 택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려 한다면, 기꺼이 금식하고 헌금함으로써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게 된다. (어린 아이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그 원리는 가르쳐 주어 한번에 한 단계씩 이끌어 줄 수 있다.) (3) 가족이 모두 금식 기금을 바칠 수 있다. —자녀들도 참여하여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4) 금식 주일은 특별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고 끝낸다.

윌라드 스미스가 안 것과 같이, 가족들이 금식 기금은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을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금은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가난한 교회 회원들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식 기금으로 행하는 중요한 사업은 감독에게 도움을 청하려 간 세 자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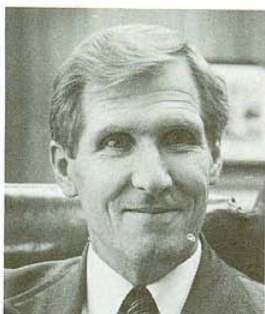
둔 어느 미망인의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마을의 이곳 저곳에서 돈을 꾸어 썼다. 감독은 그 미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띄웠다. 그러자 그 중 15명은 최소한 부채의 50퍼센트는 조정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 후 세 달 동안에, 금식 기금을 활용하여 많은 빚을 갚게 되었다. 이러한 도움은 그 가족들에게 영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자, 그 가족들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다. 아들들은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었고, 세 자녀가 모두 신전에서 결혼을 하였다. 금식 기금을 적시에 활용하고, 현명하게 운영한 것은 이 가족이 다시 안정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경험은 금식의 법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분명히 해주며, 가난한 교회 회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며, 또 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랑을 느껴 영적인 위안까지도 받게 되며, 주는 자는 금식하여 그 돈을 바침으로써 한층 더 성장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식 헌금이란 그 결과가 영원한 세계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다른 무엇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대한 금식 기금을 바치는 사람은 헌납의 법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다.

금식, 기도 및 헌금 등으로 금식의 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며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현재의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온전히 실천할 때에만 헌납의 영원한 법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렉스 디 피네가  
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 아들은 심한 학습 장애로, 공부  
는 열심히 하는 데 그 과정을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합니다. 이제 아들의 나이  
가 열 여덟살이 되어 선교사로 나갔으  
면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종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분명  
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웃 각 사람  
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  
한 경고의 말이 되게 하라” (교성 38 :  
40-41, 및 88 : 81 참조)는 명을 받았  
습니다.

우리가 모두 저야 할 이러한 전체적  
인 선교 책임 외에도, 청년들은 특별히  
2년 동안 복음 선교 사업을 하라는 권  
고도 받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킵  
블 대판장은 “모든 젊은이는 선교 사업  
을 마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  
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3페이지)

약 1세기 반에 걸쳐 선교 사업을 해  
온 교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선교사

는 임기 중 많은 보행을 하게 되며 불규  
칙적인 생활 조건과 기타 격심한 선교  
업무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장애에 봉착  
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낮은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기간 동  
안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거나 엄격  
한 일과표를 준수해야 하므로 정서적인  
면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  
라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장  
애가 있는 선교사는 스스로 고통을 당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반자가 하는  
일까지도 어렵게 하여, 두 사람이 다함  
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  
책감을 느끼게 되며 문제에 빠지게 됩  
니다.

각 사람의 봉사 능력은 개인적인 면  
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  
한 상황을 감독이나 지부장 및 스테이  
크 또는 선교부장에게 살펴 보도록 일  
임하시어, 그 분들이 추천하는 선교사  
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의사의 검  
진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  
단을 받고 여러 면에 대한 조사가 끝나  
면, 신권 지도자는 그 사람이 선교 지  
역에서 당면하게 되는 격심한 조건하에  
서 일해 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합  
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사자를 복  
음 선교사로 추천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합니다. 당뇨병  
이나 가벼운 간질 증세와 같이 해소시  
킬 수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한 문제점  
을 지닌 사람은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특히 학습 장애가 심한 사람은 선



교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광범위한 양의 교재 내용을 익히기가 곤란합니다. 때로는 구도자가 하는 심오한 질문에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조차도 답변을 찾지 못해 절절 매는 수가 있습니다. 감독과 상의한 결과, 어떤 젊은이가 복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나면, 그가 선교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한도내에서 교회에 봉사한다면, 그 당사자나 가족들은 정규의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지 못했다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부름받는 일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교성 4:2) 있게 됩니다.

장애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나, 이웃과 가족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는 흔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이해하는 독특한 능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2. 그는 선교 지역에서 고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는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곳에서 스테이크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는 자기 능력껏 경제적인 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그는 선교 사업을 위한 기도를 드려 자신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그는 의로움의 본보기 곧 믿는 자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는 자신의 간증과 교회에 대한 느낌을 비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7. 그는 물론경 앞에 자신의 사진과

간증을 덧붙여 “개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기타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됩니다. (교성 4:3 참조)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가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자녀에 대한 가장의 축복은 누가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먼저 가장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가장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며, 장인이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셨지만, 아내 역시 가

장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의 축복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합당한 자격을 갖춘 가장은 그러한 축복을 줄 축복사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혼, 사망, 가정 파탄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가정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가장의 축복은 생각지도 않았습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하지는 않았습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축복을 받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적인 교회 회원은 합당한 장로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하고 복지, 필요 사항을 관장하는 똑같은 반차는 신권 축복을 위해서도 역시 운영됩니다. 가까운 친지나 먼 친척 중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있다면, 그를 불러 병든 가족에게 기쁨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가깝거나 먼 친지 중에 축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 복음 교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 반차는 모든 회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는 누구나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축복사 또는 기타 유능한 신권 지도자들이 더 많은 믿음이나 신앙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거나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신앙있는 가정 복음 교사는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

해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똑같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가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장의 축복을 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얼마간의 동경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나, 주님은 그러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의로운 신권 지도자에게서 특별 축복 또는 위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에 대한 계시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신권에 성임되거나 여러 부름에 성별될 때에는 흔히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또는 기타 관리 신권 지도자가 성령이 지시하는대로 그러한 축복을 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기쁨 부음 축복 등은 속기로 기록하거나 테이프에 녹음해 두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의 특별한 지시 사항과 가르침을 자신의 일지에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신전 결혼을 하기에 앞서, 기타 성스럽고 필요한 시기에 가장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가정에 합당한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음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많은 회원들은 가족 친지나 가정 복음 교사 또는 기타 주님의 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위안을 받아 이를 전해 줄 수 있습니다. \*

## 한겨울에 남편을 선교사로 보내고

로자 코올러

럼 러슨에게 들려준 이야기

**로**자 코올러 자매는 체격이 조그마한 여인입니다. 그 자매는 93세나 되어 등이 조금 굽어 모습이 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봄으로써, 이 때문에 그녀의 눈이 커진 것입니다. 그 눈속에는 이 훌륭한 여인의 따스하고 애정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조그만 벽돌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데, 그 집은 오래된 나무로 둘러 싸여 언제든 지 깊숙한 그림자를 던져 주어 그 집의 무게와 연륜을 더해 주었습니다. 로자

코올러는 스스로 나무를 심었으며 톱으로 재목을 켜서 집의 지붕에 대들보로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 구실을 다해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방안은 겨울에는 따스하며 벽이 두꺼운 벽돌로 되어 있어 여름에 뜨거운 날씨에도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로자 코올러 자매는 남편이 선교사로 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 줍니다.

남편과 나는 1903년 봄에 유타주 로잔





신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일만에, 남편은 첫번째 젖소를 샀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유를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2년째 되는 해에 첫 아들을 낳았으며, 그 시기에 우리는 유타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하고도 하루째 되는 날에 우리는 일부만 완성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힘은 들었으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손잡이가 두개 달린 긴 톱의 한쪽은 남편이 잡고 다른 한쪽은 내가 잡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톱을 밀고

당기고 하여 통나무를 훌륭한 재목감으로 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의 땅에서 풀이 가득한 곳을 일구어 밭을 만들어 식탁에 싱싱한 야채를 올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집에서 행복한 2년을 보낸 후에, 세번째 아이이자 첫 딸아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기는 오후 3시에 태어났습니다. 4시에는 감독님이 우리 집에 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새 아기를 보러 온 줄로 생각했으나, 그는 남편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코올러 형제님,”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님께 선교사로 가가는 부름을 전해 드리러 왔습니다. 형제님은 1월 6일에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



입니다. 침묵을 깨고 감독이 계속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수일 내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받아 들고,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노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은 떠나 갔으나,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멍하니 쳐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확신을 받았으며, 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그 양식을 작성했으며(남편은 늘 나를 자기 비서라고 불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독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적은 수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저축하여 선교사로 나가는 남편에게 경비도 조달해 주어야 했고 어린 아이들과 내가 생활해 나갈 자금도 마련해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해 성탄절은 정말 조출하게 보냈습니다.

1월 6일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몹시 추운 아침이었는데, 나는 한참 동안 보지 못할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특별히 정성들여 조반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까지 아이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남아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이제까지 남편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은 저 밑바닥으로 철렁 내려 앉는 듯 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 내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마음이 훨씬 녹어져 곧 물 양동이  
를 난로 위에 올려 놓고 물을 데워 빨  
래를 시작하고 일손을 붙드니 절망감이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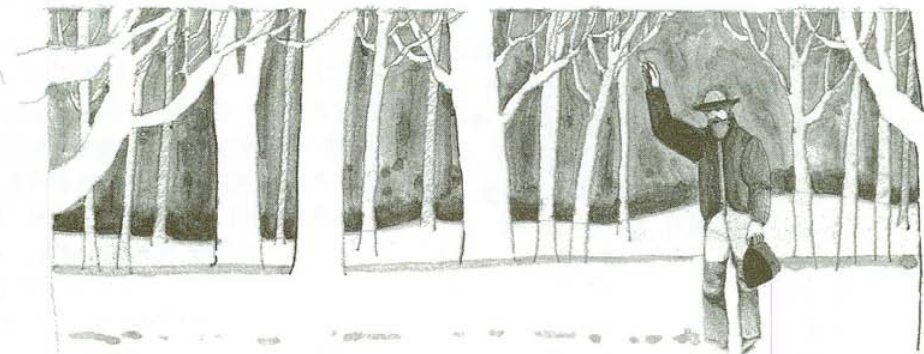
그 해 겨울에 나는 매일같이 긴 낮으  
로 쾅쾅 언 건초 더미에서 건초를 베어  
내느라고 손이 늘 얼어 있었습니다. 또  
살을 에이는 듯한 아침과 저녁 땅거미가  
질 때 젖소의 우유를 짜느라고 더욱 손  
이 얼어 붙었습니다. 정말 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자, 새로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나는 밭을 갈아 본 일이 한번도 없었으  
며 또 밭을 갈 말도 없었습니다. 인정스  
런 이웃 사람이 내게 자기 말을 빌려  
주어, 나는 결심을 하고 봄에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에 쟁기를 매달  
고 그 끈을 허리에 걸고 밭을 갈았으며

그동안 아기는 유모차에 태우고 어린  
두 아들들은 그 곁에서 놀게 했습니다.  
밭을 갈고 난 다음에는 여러번 씨뿌릴  
을 하여 씨를 뿌리기 위해 흙을 부드럽게  
골랐습니다.

나는 아직 날씨가 쌀쌀한 어느 추운  
이른 봄 아침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  
는 동안에 일찍 파종할 종자를 갖고 밭  
에 나가 심었으며, 씨를 뿌리는 동안에도  
집에 아무 일이 없다가 알아 보기 위해  
밭과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  
다. 감자를 심을 시기가 되자, 두 아들  
이 내가 파 놓은 구멍에 감자 종자를  
묻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을 맞이했으나, 또한 물을 대 줄시  
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  
다. 내 차례가 올 때마다 나는 수로의





수문을 열고 여러 개의 웅덩이에 물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한 밤중에 내 차례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물을 대 주면, 무엇이든지 부쩍 부쩍 자랐으며, 잡초는 베어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개자리는 금방 커져 곧 베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풀을 깎던 날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바람이 불면 상긋한 건초 냄새가 풍겨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일 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리고 우유를 짜기도 전인 이른 아침에만 풀을 베려니 그 일을 하는데만도 나홀이 걸렸습니다. 나는 건초 더미를 여러 줄로 끊어 모아 다발로 묶어 다시 그 다발을 하나씩 날라 한 곳에 쌓아 올려 퐁퐁 묶어 두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 하루 온종일 건초 더미를 쌓아 놓고, 별 탈이 없겠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아이들을 집안으로 들여 보내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해 여름에 아이들은 눈에 띄게 컸고 나는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딸기가 익어, 어느 날 아침에 그것을 따서 조반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딸기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 추수 때가 되어 야채도 거둬들이고 감자도 파내야 했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어, 건초 더미를 베어내느라 다시 손이 얼어 터졌으며, 게다가 우리 집 젖소가 예쁜 송아지를 낳아 먹이를 주어야 할 식구가 더 늘었습니다.

나는 일 주일에 세번씩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지만, 아무리 생활이 고되어도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해

겨울은 더 긴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름다운 봄이 와서, 밭을 갈고, 씨 뿌리며, 물을 대 주고, 풀을 깎고, 후에 먹을 저장 식품을 만드는 등의 힘든 하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건초 더미를 만드는 일도 되풀이 했습니다.

어느 날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늘 일요일마다 금식했습니다. 돈을 거의 다 썼음을 안 그 날은 일요일도 아니었지만, 나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안되어 선교부장님으로부터 남편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임무를 마치고 훌륭한 선교사로 일한 나의 남편이 곧 돌아 오게 된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남편이 타고 올 기차의 도착 시간을 알려 주는 엽서가 왔습니다.

나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전에 말을 빌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사륜 마차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기차는 저녁 떠나 되어야 도착할 것인데 지금은 아침 10시 밖에 안 되었다고 말해 주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달려 나갈 기세로 서둘렀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일년도 더 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안되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참으로 조용하고 맑은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기적 소리는 내게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훌륭한 재회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너무도 많은 것을 간구했습니다. \*

# 신앙은 더욱 큰 지식

지 호머 더럼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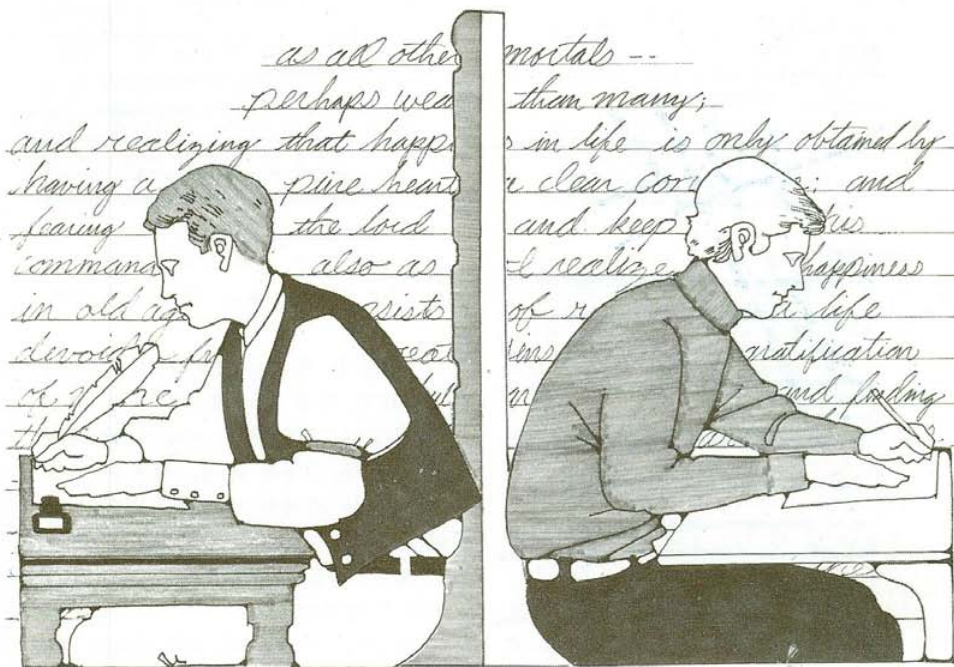
칠십인 제일 정원회

1891년 1월 2일에 노르웨이에서 이민  
해 온 19세 청년이 유타 지역, 캐  
쉬군, 로간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다음  
글을 썼다.

“나는 내가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이  
아니 그 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임을 알  
게 되었으며, 이 생의 행복은 청결한 마  
음과 깨끗한 양심 그리고 주님을 두려  
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므로서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나는 노년기의  
행복감은 큰 죄악에 물들지 않은 인생

을 돌이켜 보며, 고귀한 소망을 당당하  
게 수행한데서 오는 만족감에 있다는 것  
을 깨달았으며, 이제까지의 나의 인생  
은 내가 꿈꾸어 온 것과는 같지 않았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후의 나의 인  
생을 다스려 나갈 다음 규정을 세우며,  
끝날까지 나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  
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노  
라.”

그런 다음 그는 17개의 결의 사항을  
썼다. 약 8개월 후인, 1891년 8월 25일





화요일에 그는 그것을 두꺼운 표지로 된 그의 일지에 베껴 썼다. 이 일지에 그는 유타 지역으로부터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바드 대학에 편입한 낯선 학생으로 고된 학창 생활을 한 경험도 기록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지침이 될 17개 결의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결의 사항:

1. 학문 중의 학문인 종교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대한다.
2. 나는 매일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3. 나는 매일 하나님과 그 속성을 생각해보고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한다.
4. 나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든, 빛과 지혜와 지식을 받는다.
5. 나는 내가 일단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한 원칙, 신조 및 종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한다.
6. 나는 시간을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활용한다.
7.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엄격히 절제한다.
8.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지 않을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9.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님의 뜻을 알므로써 위안과 힘과 용기를 얻는다.
10.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수수하고 분명한 진리만을 말한다.
11. 나는 항상 내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며 칭지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한다.
12. 나는 살아 있는 동안은 내 온 정성을 다해 생활하며, 죽노니만 못

한 생활은 하지 않는다.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강요하려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의견은 간단히 말하고 제시한다.
14. 나는 쉽게 분노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조조하게 구는 등 이웃과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습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15. 나는 모친에 대한 내 의무를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는다. 모친은 나를 낳으셨고, 나의 인간성을 길러 주셨다. 모친은 나를 위해 좋은 시절을 다 보내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영예와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또한 나의 형제와 친구 및 친지에 대한 나의 의무를 항상 기억한다.
16. 나는 내가 시작한 모든 과업을 완수하며, 나의 목적과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 본다.
17. 나는 내가 만나는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친구의 눈속에서 티를 빼내려 하기에 앞서 내 눈속의 들보를 찾아보려 한다.”

오늘날의 젊은 남녀도 이와 같이 자신의 생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글을 쓴 청년은 로간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 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1891년의 새해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3개월 전쯤,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이 계시로 “시현”을 받았던 것이다. 쫓김을 당하고, 박해받고, 오해받고 있는 말일성도에게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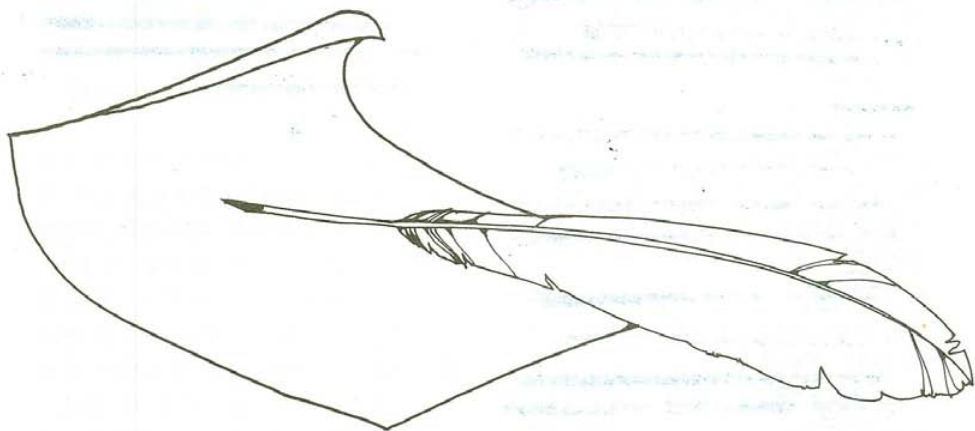
이 청년의 이름은 존 앤드리애스 윌



소였다. 그는 편모 슬하에 어린 남동생과 함께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1884년에 노르웨이에서 건너왔다. 1894년 6월 27일에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바드 대학의 구내의 산더스 강당에서 하바드 대학의 찰스 더블류 엘리웃 총장은 십마 쿨 라우드(최고 명예상) 학사증을 이 이민 청년에게 수여하였다. 그는 3년 동안에 4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다. 혼자 되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은 빈약한 수입에서 얼마간의 돈을 떼어 그에게 보내 주었다. 나머지 교육비는 개인적인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로간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서 12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는 차용서를 쓰고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다. 그는 하바드에서 로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유타주 로간에 있는 농업 실험연

구소의 화학자로 일했다. 1898년 1월 1일에 그는 수사 영 게이크의 큰 딸인 아름다운 레아 던포드 양과 결혼했다. 신혼 부부는 함께 독일로 가서 그는 그곳 괴팅겐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스위스의 취리히 종합 기술 연구소와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계속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유럽에 있을 때 그는 브리감 영 대학 이사회 회장이 그 대학의 학장으로 오라고 친 해의 전보를 받았다. 그 이튿날에는 대판장단의 조셉 에프스미스 대판장이 보낸 전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브리감 영 대학의 학장직을 수락하지 말고, 돌아오면 현재의 유타 주립 대학의 전신인 농업 연구원을 설립하여 건조한 농업 지역과 관계 시설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로 세상의 사막 지대를 기름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관개 시설과 건조한 농업 지대를 과학적으로 개간하는 일의 선조가 되었다. 그의 저서와 기사는 불탄서와 이태리와 아랍 세계에서 발행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의 건조 지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는 내무성 장관의 부름을 받아 미국의 개간 법과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유타주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대학(1907~1916)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1916~1921)에서 총장직을 역임했다. 1921년 3월에 그는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에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임수된 그의 장례식장에서는, 캐나다를 위해 봉사한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캐나다의 수상이 보낸 전문이 낭독되었다.

존 에이 윌소 장로의 생애는 교회와 현대 세계의 모든 청년 남녀, 특히 대학이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갓 접어드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준다.

그가 한 이야기를 다시 음미해 보자.

“이 생의 행복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서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후의 나의 인생을 다스려 나갈 다음 규정을 세우며, ” 모든 젊은이들도 그들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자 하는 규정을 적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윌소 장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충고했다.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의 집념은 젊은 말일성

도의 생활에서 훌륭한 지표가 되었다. 두 곳의 주립 대학 총장을 역임한 그는 또한 수 년 동안 브리검 영 대학 이사회 의 일원으로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그는 또한 교회 교육 위원회에서 두 번 씩 봉사했다. 근본적인 그의 집념은 지식의 분야를 넓고 깊이있게 추구하고자 함이었지만,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주님을 얻는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복음의 제일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더 큰 지식”으로 논했다.

하바드 대학생 시절에 그가 쓴 시는 알렉산더 슈라이너 곡에 붙여 현재 말일성도 찬송가에 실려 있다. (“거룩하신 복음으로”) 그 찬송가에는 “주여 더 큰 신앙 지식 축복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들어있다.(찬송가 4장)

우리는 현세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돈이 없어도 가정 생활을 하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굳굳하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과 지식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윌소 장로가 일찌기 자기 인생을 위해 세운 똑같은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할 수 있다. 그가 보여준 본보기는 오늘날의 모든 청년 남녀에게 권장할 수 있다.

‘진리의 추구’라는 저서에서, 윌소 장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그를 성공하게 하였다. 그것은 누구든 성공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일하고, 일하라, 연구하고, 연구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



##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멜빈 레빗

어느 메마른 곳—사하라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습지와 같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지방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 일주일 정도 뜨거운 햇볕과 바람에 말린다면, 아타카마 사막의 반 정도 마른 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칠레 북부의 4분지 1에 해당되는, 아타카마 사막은 지난 20년 동안 강우량이 총 0.76밀리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미하고, 강인한 잡초나 미생물조차 이 메마른 곳에 발을 붙일 수 없었다. 눈에 띄이는 것이라고는 생명 없는 흙먼지 뿐이었으며, 산이나 샘을 판해서 흘러내린 시냇물 흔적이 있는 지역이 간혹 보였다. 이러한 회색빛 구름지의 토양에 미생물이라도 살아 있으리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도시가 들어서 있다. 그 중 하나는 칠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리카 시인데, 그 도시는 메마른 아타카마 지역에서도 가장 메마른 곳에 세워졌다. 푸른 나무 숲과 꽃으로 뒤덮인 그 도시는 푸른 태평양과 죽음의 황무지 사이에 놓여 있다. 그 도시는 맑은 도시이다. 주택과 상점은 생동감 있는 색채로 칠해져 있다. 시민들은 행복에 넘쳐 있으며, 집집에서 즐거운 음악이 흘러 나온다. 공휴일과 축제일에는 온 시가지가 활기에 넘친다.

이 밝고 행복이 가득 찬 도시에서, 가장 밝고도 행복한 사람들은 역시 말일성도이다. 아리카 시의 두 와드에는 헌신적인 젊은 말일성도가 많이 있어, 계명을 지키고, 선교 사업과 결혼 생활과 의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 준비하며, 멋진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자주 함께 모임을 갖고, 스포츠와 무용을 즐기며, 회합이나 파티에 참석하고, 특히 아리카 시의 여러 해변에서 바닷물에 뛰어 들기를 즐긴다.

11월 어느 따스한 오후에 버스가 아리카 해변의 종점에 닿자, 한 배의 명량하고 발랄한 젊은 남녀가 버스 안에서 쏟아져 나와 해변의 부드러운 모래밭으로 뛰어 들었다. 그 너머로는 아리카 시의 남쪽 지평선을 가로 막은 거대한 회색빛 절벽으로 된 엘 모로가 어렴풋이 보인다. 곧 색색의 타일이 해변가에 깔렸고, 피구 게임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이 없어, 한 청년이 밀에 간 타일을 집어 들었다. 그것을 여러 번 매듭을 짓고 누군가 구두끈을 풀어 뽁뽁 묶어 매 놓으니, 공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남성 대 여성으로 편을 짜서 피구 게임을 시작했다. 남자들은 힘도 세고 공도 잘 던졌으나, 여자들은 요령이 있어 승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이 모래밭에서 뛰고 춤추니,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도 따라서 뛰며 춤추는 듯했다. 얼마 후에 그 게임은 공을 멀리 던져 어느 팀에서 빨리 찾아 오는가 하는 게임으로 발전되었다.

그 게임에도 지치자, 몇몇 젊은이들은 쉬며, 아리카에서의 생활을 다룬 뉴이러지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리케노스는 웃기를 좋아하며 축제에는 빠지는 일이 없다. 그들은 휴일을 즐기고 축제는 정성껏 그리고 흡족할만큼 준비한다. 일년 중 가장 즐거운 때는 2월의 카니발(축제) 기간이다.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물을 가득 채운 풍선이나, 색종이 또는 꽃 세례를 받기가 십상이다. 디아 디 로스 피카도스 축제일에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물동이, 진흙, 구두약, 염료, 계란 등 무엇이든 물렁한 것은 다 던질 수 있다. 광장에서는 춤과 파티가 벌어진다. 나무로 깎은 원숭이에 연미복을 입히기도 한다. 이 원숭이는 카나벨론, 즉 카니발의 주인공이 되며, 그가 파티나 축하 행렬에 나타나면 누구나 그에게 과장된 존경을 표시한다. 카니발이 끝나게 되면, 슬피 울고 통곡하며 카나벨론을 매장한다.

해변에 모인 젊은이들은 칠레의 학교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대체로 반나절만 수업을 받으나, 방과후에도 열심히 공부한다. 학교에서 각 학생들은 스페인어, 수학, 음악, 영어, 물리학, 화학 및 기타 선택 과목을 수학한다. 전공 과목의 최종 시험에서 실패하고, 보충 시험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그 학년에 그대로 유급하여 잘 한 과목도 다시 배우게 된다. 시험이 엄중하게 치르어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학생들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

해 밤늦도록 공부하며, 낙제 점수를 받지나 않을까 하여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학 입시 경쟁은 치열하나, 칠레에 있는 물론 학생들은 모두 잘 해내고 있다. 햇벌을 피면서 그들은 복음과 책과 책임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우리의 미래에 관한 맥콩키 장로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 우의를 나누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품행에서 본모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엘리소벳 산티바네즈가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함으로써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원은 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거예요.”

1977년 3월 1일, 십이사도 평의회 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지역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칠레에 있는 일곱 개의 스테이크가 일흔 배로 늘어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50명의 활동적인 칠레인 선교사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개종한 어느 회원은 이렇게 말한다. “이 교회의 장점은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온화하고 정이 많

아요.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지 얼마 안 되는 산토스 알타미라노 에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진리를 알려 주어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교회 지도자의 충고에 따른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여 이야기한다. “킴볼 대관장님이 사도이셨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니 여러분 가정마다 식량을 비축하여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몇년 전에 칠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찢절 맨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이 성취된 것이 기억날 때마다 예언자의 충고에 순종할 것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렉터 노보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 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 인간이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복음의 지식을 아는데서 온다는 것을 만방에 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위대하니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온 전신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며 주께서 가까이 하심을 느낍니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장막이 거두어진다면, 나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지낸 전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인간을 참된 길로 이

끌고 후원해 주는 찬란한 약속의 빛이 없다면 그야말로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속한 해의 영광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지상에 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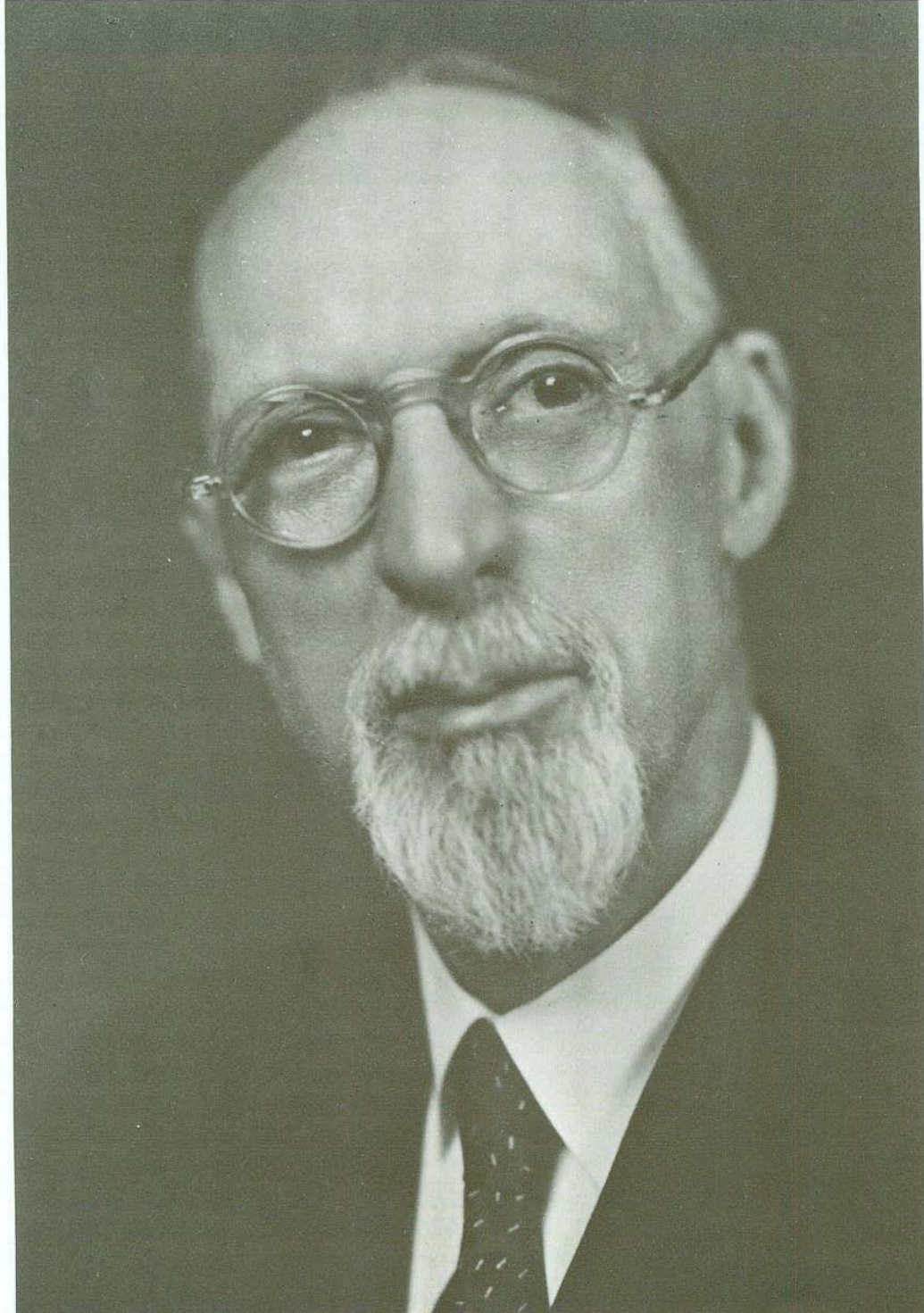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예롭고, 숭고하며, 만족을 주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나는 내 온 마음과 육신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몸바쳐 행합니다. 또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어, 내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돌아올 때를 바라시며 나를 반겨 맞으려 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고, 넘치는 힘과 의지와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허감을 채워 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이처럼 신선하고, 건강하고, 위대하며, 빛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과 용기를 새로이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일에 이 지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교회를 굳건히 세워 놓아야 합니다.”

해변가에 모인 이 젊은이들 중에 누구도 아리카에 비가 내린 것을 본 일이 없으며, 또 앞으로 볼 수 없겠지만, 그들 내부에 간직한 정신력과 힘을 뭉칠 때, 아타카마 사막조차도 기뻐하며 백합과 같이 피어 나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







# 인간의 기원과 성취된 예언

조지 앨버트 스미스

**편** 집자 주: 제 8대 대관장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사했다. 그가 대관장으로 부름받은 직후에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 세계 각지에서 전쟁에 시달린 말일성도의 생활을 재건시키는 기념비적인 과업을 수행했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선교 사업도 재개되었다. 교회의 복지 기구를 통하여 수 천개에 달하는 식량과 의복 상자가 유럽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때로는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선 행위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역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나가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상의 모든 나라 끝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5년 12월호)

스미스 대관장은 1870년 4월 4일에 유

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75세의 나이로 1945년 5월 21일에 대관장으로 부름받아 성임되었다. 4개월 후인 1945년 9월 23일에 그는 아이다호 펄스 신전을 헌납했다. 그는 약 6년간 대관장으로 봉사했으며, 1951년 4월 4일 81회 생일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문은 본래 대관장단과 인연이 깊었다. 그는 존 헨리 스미스 장로의 장남이었다. 그 부친은 존 테일러 대관장의 재임시에 사도로 부름 받았으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보좌로 일했다. 그가 이름을 물려 받은 그의 조부인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사도로 부름 받았고,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로 일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숙부이며 파더 존 스미스로 알려진 그의 증조부는 교회의 제 3대 축복사이며, 솔트레이크 시온 스테이크의 제 1대 스테이크 부장이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1903년 10월 8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943년 7월 8일에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그가 아직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교회 대관장으로 부름받기 몇 주 전인, 1945년 4월 8일에 그는 전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음 연설을 하였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여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 27, 28)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창세기 2: 4, 5)

이것은 모두 영적인 창조였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인 창조가 따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세기 2: 7)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종류대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그들은 우리의 첫번째 부모이며 지상에서 생활한 모든 인류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 만사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러한 가르침은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계속 전해졌습니다.

성경의 연대에는 약 6000년 전에 우리의 첫 부모가 지상 생활을 시작한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주님을 대변하는 거룩한 성임을 받은 주님의 예언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며, 이 지상에서 이룬 인품과 많은 지식을 영원한 세계로 가져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흠없는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생과 후세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고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해야 했던 일 중에는 때때로 그들에게 계시된 진리를 기록하여 그들의 후손을 위해 그 기록을 전해 주어 각 세대가 물려 받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도 태초로부터 계시하신 내용이 담긴 지침을 수록한 기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때로는 예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정한 시기에 성취될 일도 들려 줍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7) 이



세상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주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충고를 주시지 않아 인간이 앞으로 전개될 일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방책도 강구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신 경우는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의인이 앞으로 닥칠 홍수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 세대의 주민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충분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너무도 사악하여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의를 택하기 보다는 악을 택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닥치자 노아와 여덟 명의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손이 이방의 나라로 가서 400년간 고생을 한 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풀려나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내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굽이 사랑한 아들인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때 바로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으나 박사들도 그 뜻을 풀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 그는 왕 앞에 풀려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해석을 받은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그 꿈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7년 동안 그 나라 전역에 흉년이 들다가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니, 바로가 흉년든 해에 식량을 많이 쌓아 두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몽과 충고를 받아들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으며, 그보다 높은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었습니다. 14년이 다 지나감에 따라 요셉이 해몽한 꿈은 그대로 실현되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기근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속박을 받게 되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 기술공과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성전에서 꺼내어 온 성스러운 보물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 갔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태어나기 140여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그의 출생을 예언하고 그의 이름을 밝히며 그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또한 유대인과 이해를 같이하지 않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을 재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레스가 50세쯤 되어 많은 백성과 작은 나라들을 정복시킨 후에, 그는 군대를 모아 바벨론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큰 도시로 높이가 91미터가 되는 난공불락의 성벽과 강한 철문으로 둘러 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으로 공격하지 않고 유브라테 강줄



기를 돌려 그 성으로 흐르게 하여 성밀에 있는 수로를 통해 바벨론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그 성을 장악했는데, 그 때까지 벨사살은 신하들과 함께 술에 취해 그의 부친인 느브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 온 주님의 집의 성스러운 물건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성안에서 고레스는 히브리 예언자 다니엘을 보았는데, 그는 이미 손가락으로 벽에 쓴 글을 해석하여, 벨사살이 “저술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단 5:27)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을 살펴본 고레스는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열국에게 그들이 그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 주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폐망한 지 꼭 7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0여년도 훨씬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다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영화의 극치를 누리고 있을 때, 이사야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영원히 사람이 거하지 않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했으며 홍수에 잠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아래 그 보다 큰 곳이 없던 그 도시가 약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아직 폐허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은 놀라우며 믿기 힘든 예언으로 가득차 있으나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예언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았으며, 하나님만이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셉 및 기타 여러 예언자들은 그들의 이웃과 다름없는 인간이었으나, 그들은 택함을 받아 주님을 대신하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받아 말했으며, 주님의 권능이 그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있는 여러 예언 중 하나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을 전부 읽어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예언은 1900여년 간의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전체 유대 국가의 운명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지금도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경고를 기억한 충실한 제자들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도시는 오랫동안 포위당하여 그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과 창검에 시달렸습니다. 포로로 잡혀 간 사람 외에도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해졌고, 성전은 파괴되어 돌 조각하나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했으며, 백성들은 지구 위의 모든 나라에 흩어졌습니다—모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그들의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주님의 종들의 경고를 받았으나, 방약무인하며 그 말을 듣지 않아 멸망이 뒤따른 것입니다. 다른 도시와 나라들은 풍요하고 강대해지고 또 사악해져 망각속으로 잊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현대 세계가 그 주민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슬픔과 멸망을 거두어 들이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 재앙을 자초하여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멸망이 결국 우리를 덮치게 되리라는 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함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또는 그 부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는 일시적인 조각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 놓아야 합니다. 빈 손으로 세상에 왔으니 빈 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땅이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생의 축복과 우리가 이 생과 후세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에 대해 치러져야 할 조각료입니다.

후세에서의 우리의 처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서 편히 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되고 자신이 얻은 영광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이 지상에 오시어 그 생명을 마쳐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도 거의 2000년이나 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 됩니다. 바로 그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다.”(요 5 : 39)

그분은 성경의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국가 시책에 가장 많이 반영한 나라는 천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을 거두고, 평안을 누리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욕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충명을 주시나니.”(욥 32 : 8) 이 시대의 우리는 의로움 속에서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그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와 다른 외국의 많은 예지있고 의로운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욱 풍요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이 지구위 바로 이곳에 세워질 주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과 승영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



